

“공익형 직불제에 산림 포함돼야” 최준석 사업대표이사 인터뷰



1 산림조합중앙회 청사 2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

❶ 산림조합의 역할에 대해 소개해달라.

ⓐ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연간 221조원의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산림은 국부의 척도이자 천년지대계이며, 마땅한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일한 자원이자 유산이다.

58년의 역사를 지닌 산림조합은 80만 조합원과 210만 산주를 대표하는 사유림 경영 대표기관으로서 그동안 우리 민족의 역동성, 공동체 정신이 깃든 대한민국 산림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오로지 한 길만을 걸어왔다.

그동안 산림조합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험벗은 산을 단기간에 푸르게 한 산림녹화의 주역이자 대형산불·산사태 같은 국가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 등 공익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등 대한민국 산림 분야 발전을 이끌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특히 산림조합은 산주와 조합원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사유림 경영 주체로서 산림을 터전으로 하는 산주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권익 향상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심 없는 노력을 해왔다.

산림녹화로 대변되는 양적성장 중심에서 오늘날 사람 중심의 산림 휴양·복지 시대의 질적 중심 산림정책에 이르기까지 급변하는 산림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파트너이자 산림사업 중추 실행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산림발전을 이끌어왔다.

❷ 공익형 직불제에 산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산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산림은 국민 1인당 연 428만원의 혜택을 안겨주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복지자원이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국가성장동력의 새로운 원천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고자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했지만 여기서 산림 분야는 제외되면서 소득 보전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 인해 산주와 임업인들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공에도 불구하고 공익형 직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을 방문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 대상에 반드시 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끌어내기도 했다.

조합에서도 자체적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산림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약 35만명 이상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사업대표이사로서 80만 조합원과 210만 산주의 염원을 담아 산림 분야 최대속원사업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 대상에 반드시 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과 소임을 다할 생각이다. ▼